



현의송의

일본농업 따라잡기

<22> 아이치중앙농협 영농 집단화

영농조합은 생산, 농협은 가공·판매…‘분업’이 성공 열쇠

아이치(愛知) 중앙농협이 소재한 안조(安城) 지역은 나고야에서 동쪽으로 30km 떨어져 있고 인근의 도요다(豊田)시와 함께 자동차 관련 기업이 많은 곳이다. 하지만 오래 전부터 ‘일본의 덴마크’라고 할 만큼 농업이 발달했고, 지금도 마을 규모 집단 영농의 선진지로 유명하다.

아이치중앙농협은 1960년대에 안조농협으로 출발했으며 한국의 안성농협과 자매결연을 해 오랫동안 교류해 왔고 한국인들이 많이 방문했다. 10년 전 인근 4개 시의 농협과 합병하여 아이치현에서 두 번째로 큰 농협인데, 규모는 조합원 2만 7천여명(준조합원 1만 3천명 포함), 예수금 5천억 원, 정규 직원 800명이다. 합병 초기 직원이 1천여 명이었으나 계속 감축해서 지금은 800여 명으로 줄었고 지소 수도 75개에서 점차 폐쇄해 43개가 되었다.



농산물 직매장에 걸려있는 출하 회원들의 사진. 소비자가 직매장의 농산물을 믿고 구입하는 데 이 사진들이 큰 영향을 미친다.

안조 지역은 농업 선진지역답게 30년 전부터 농협의 적극적인 지도와 행정 기관의 후원으로 3천ha쯤 되는 농경지의 50%를 106개 마을 영농조합에 집적시켰다. 이로써 이곳 농업은 대규모 벼농사와 밀과 콩의 돌려심기로 세련되었다는데, 이 실험의 성공은 학계에서도 연구 대상으로 널리 알려졌다.

농경지 50% 106개 조합 집단화

이 가운데 3개 영농조합은 법인화해 전국적으로 모델케이스가 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농협이 주도해 영농을 마을별로 집단화하고 법인화하기 때문에 영농조합은 수확만 담당하고 건조와 저장, 판매 등은 농협의 시설을 이용한다는 점이다. 전국 어디에 가보아도 영농조합의 규모가 커지고 법인이 되면 가공이나 판매를 직접 하는 등 농협을 이탈하는 경향을 보이는 이곳은 농협과 함께 가는 점이 특이하다.

또 하나의 특징은 합병을 하면서 폐쇄한 지점이나 ‘A-COOP’(한국 농협의 하나로마트와 같은 것) 자리에 노인복지 시설이나 농산물 직매장을 운영해 조합원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는 점이다. A-COOP는 합병 당시 5개 점이었으나 4곳은 폐쇄하고 한 곳만 남겨두었다. 24시간 영업을 하는 ‘컨비니언스 스토어’(편의점)

나 대규모 홈센터 등이 들어오면서 농협 A-COOP의 경쟁력이 떨어져 적자가 심화되자 어쩔 수 없이 폐쇄했다고 한다. 남은 한 곳도 운영을 농협이 직접하지 않고 현의 경제연합회의 자회사에 위탁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직접 운영할 때보다 적자가 절반으로 줄었다.

농산물 직매장은 지역별로 10개를 개장해서 2800



직매장은 대개 연간 매출액이 2억 원 정도되는 소규모이지만 갈수록 출하 농산물이 늘고 새로운 품목이 개발되어 직매장 판매고가 매년 20%씩 증가한다고 한다. 아이치 중앙농협이 운영하는 농산물 직매장 모습.

농협이 합병 주도 영농조합 집단화·법인화

합병 후 폐쇄된 직매장엔 노인복지시설 호평

지를 제시하고 영농지도원 65명이 지침별 농기를 순회하며 생산지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70% 수준인 지역 내 생산물을 장차 100%로 끌어올리겠다고 한다.

도요다 자동차의 관련 기업이 많이 위치해 있어서 90% 이상의 농민이 결업농과이고 전업농가는 250호밖에 안된다. 그래서 이 지역의 ‘구인(求人) 배율’은 전국 최고인 1.2를 기록한다. 중요한 것은 직장을 얻고자 하는 사람보다 일할 사람을 찾는 경우가 더 많다는 점이다. 항상 일할 사람이 부족한 상태이다. 그 결과 이 지역의 2차산업 비율은 전국 평균 30%보다 훨씬 높은 47%에 달하고 있다.

농협이 나서 무화과 판촉활동도

이 지역은 일본 제일의 무화과 산지로도 유명하다. 눈에도 무화과를 집단적으로 심어 가지치기를 하면서 철저하게 관리한다. 농약을 별로 사용하지 않아도 쉽게 재배할 수 있어 고령자들에게 적합한 농업으로 정착되어 현재 47㏊가 재배된다. 출하하는 주로 도쿄 시장이다. 처음 판매할 때는 소비자들이 무화과를 잘 몰라 농협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판매 촉진 활동을 벌였

다고 한다. 이 지역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는 무화과 품종은 ‘사마리도’와 ‘마스이도원’ 두 가지이다. 당도가 높고 선도 유지에도 좋은 품종이다.

아이치 중앙농협은 5개 시의 5개 농협이 10년 전 합병한 뒤 계속해서 전무 출신이 조합장을 맡고 있다. 그런데 조합원 2만 7천여명, 예수금 5천억 원, 직원 수 800명의 거대한 경영체가 되자 조합 경영이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좀처럼 조합장을 하겠다는 사람이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 이에 대해 전 도쿄도 중앙회장을 했던 가토(加藤) 씨는 “임기가 끝나 조합장을 그만 둘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편이다. 그만 두고자 해도 조합원들이 경영 책임을 물어 부실체권을 다 정리할 때까지 그만 두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한다.

인도 감사의 안내로 다카나(高棚) 영농조합을 방문했다. 일본 농업에서 후계자 문제와 관련해 초점이 된 것은 벼농사 부문이었다. 그런 점에서 다카나 영농조합은 일본 농정의 방향 설정에 중요한 모델이 되어왔다. 이 영농조합은 7명의 농민이 50만 원씩 출자해 만들었는데 임차자 180㏊에서 벼농사를 하고, 50㏊에서 밀을 전작업 수탁영농을 하며, 40㏊는 부분작업 수탁영농을 한다. 이를 모두 합하면 270㏊를 경영하고 있는 셈이다.

조합원 한 명당 4,000만 원 고수익

연간 매출액은 2억 8천만 원으로, 조합원 한 명당 4천만 원 앤이다. 다카나 마을의 전체 경지면적 422㏊의 64% 정도를 7명이 담당해서 벼농사, 밀, 콩을 집단 재배하고 있는 것이다. 이 영농조합이 성공적으로 대규모 위탁영농을 30년 동안 계속 하게 되자 이 지역의 논값은 다른 인접지역 논보다 평당 5만 원 비싸게 거래된다.

조합원 한 사람당 평균 38㏊를 경작하고 있는 것은 대규모 기계장비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트레터 14대, 이앙기 6대, 롤바인 10대, 무인 헬기 1대 등 대형기계의 일관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이렇게 대형기계가 활용될 수 있도록 농지가 900평 규모의 구획으로 정리되어 있다. 고정자산의 취득 가격만 2억 6천만 원에 이른다.

당기순이익은 개별 투입 노동시간 비율로 완전 평등 분배 되는데, 2005년에는 한 조합원당 2천만 원씩 분배되었다고 한다. 준비금, 적립금, 출자배당은 하지 않는다. 농산물 판매비 비율은 쌀 68%, 밀 23%, 콩 9%로 거의 7대 2대 1의 비율이다.

대규모 영농조합의 경우 대부분 가공과 판매를 직접 하고 소비자와 직거래도 하는데, 다카나 영농조합은 모든 생산물을 농협을 통해 판매한다. 시대적인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해가는 일본 안조 지역의 농촌과 농협을 보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본 히로시마 수도대학 객원연구원·광주일보 일본통신원 shyun21@naver.com

면책결정공고 사 건 2006하번193 면책 (2006하번186)파산선고 파산자 빙정아 (660803-*****) 주소 광주 서구 광천동 651-44 주 문 파산자를 면책한다 2006년 8월 2일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 성 흠	면책결정공고 사 건 2006하번198 면책 (2006하번190)파산선고 파산자 김선일 (631225-*****) 주소 나주시 백남면 흥 덕리 275 주 문 파산자를 면책한다 2006년 8월 2일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 성 흠	면책결정공고 사 건 2006하번199 면책 (2006하번192)파산선고 파산자 김점례 (5101208-*****) 주소 여수시 화장동 882 주 공아파트 311동 1303호 주 문 파산자를 면책한다 2006년 8월 2일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 성 흠	면책결정공고 사 건 2006하번202 면책 (2006하번196)파산선고 파산자 유숙화 (571208-*****) 주소 광주 북구 용봉동 934 주 문 파산자를 면책한다 2006년 8월 2일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 성 흠	면책결정공고 사 건 2006하번204 면책 (2006하번198)파산선고 파산자 이수월 (510204-*****) 주소 광주 동구 학동 921-1 주 문 파산자를 면책한다 2006년 8월 2일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 성 흠	면책결정공고 사 건 2006하번207 면책 (2006하번200)파산선고 파산자 박일용 (740729-*****) 주소 복포시 상동 845-1비파 2차아파트 202동 406호 주 문 파산자를 면책한다 2006년 8월 2일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 성 흠	면책결정공고 사 건 2006하번210 면책 (2006하번204)파산선고 파산자 김순희 (780510-*****) 주소 광주 남구 월산2동 216- 12 레임빌 301호 주 문 파산자를 면책한다 2006년 8월 2일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 성 흠	면책결정공고 사 건 2006하번213 면책 (2006하번206)파산선고 파산자 김은희 (680130-*****) 주소 광양시 광양읍 데 례리 1740-2 주 문 파산자를 면책한다 2006년 8월 2일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 성 흠
면책결정공고 사 건 2006하번217 면책 (2006하번210)파산선고 파산자 김연심 (720309-*****) 주소 여수시 여서동 496-1부 영아파트 708동 101호 주 문 파산자를 면책한다 2006년 8월 2일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 성 흠	면책결정공고 사 건 2006하번220 면책 (2006하번213)파산선고 파산자 박순경 (630926-*****) 주소 여수시 송정동 338-4 주 문 파산자를 면책한다 2006년 8월 2일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 성 흠	면책결정공고 사 건 2006하번223 면책 (2006하번215)파산선고 파산자 박순경 (710718-*****) 주소 광주 남구 주월동 438-42 주 문 파산자를 면책한다 2006년 8월 2일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 성 흠	면책결정공고 사 건 2006하번226 면책 (2006하번218)파산선고 파산자 정우례 (650329-*****) 주소 여수시 문수동 797 주공아파트 102-806 주 문 파산자를 면책한다 2006년 8월 2일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 성 흠	면책결정공고 사 건 2006하번228 면책 (2006하번220)파산선고 파산자 김미숙 (651006-*****) 주소 전남 신안군 흑산면 비리 117 주 문 파산자를 면책한다 2006년 8월 2일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 성 흠	면책결정공고 사 건 2006하번232 면책 (2006하번224)파산선고 파산자 김순탁 (350412-*****) 주소 광주 북구 운동동 491-27 주 문 파산자를 면책한다 2006년 8월 2일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 성 흠	면책결정공고 사 건 2006하번234 면책 (2006하번222)파산선고 파산자 임정임 (671116-*****) 주소 광주 서구 신상동 1199-9 주 문 파산자를 면책한다 2006년 8월 2일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 성 흠	면책결정공고 사 건 2006하번236 면책 (2006하번228)파산선고 파산자 임정임 (571001-*****) 주소 광주 북구 용봉동 1199-9 주 문 파산자를 면책한다 2006년 8월 2일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 성 흠
면책결정공고 사 건 2006하번241 면책 (2006하번234)파산선고 파산자 황혜숙 (550113-*****) 주소 전남 무안군 청계면 송현리 120-33 주 문 파산자를 면책한다 2006년 8월 2일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 성 흠	면책결정공고 사 건 2006하번244 면책 (2006하번236)파산선고 파산자 정숙희 (690505-*****) 주소 목포시 산정동 1656-21 주 문 파산자를 면책한다 2006년 8월 2일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 성 흠	면책결정공고 사 건 2006하번245 면책 (2006하번237)파산선고 파산자 문충식 (651009-*****) 주소 목포시 산정동 1656-21 주 문 파산자를 면책한다 2006년 8월 2일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 성 흠	면책결정공고 사 건 2006하번249 면책 (2006하번241)파산선고 파산자 오은경 (750425-*****) 주소 목포시 죽교동 77- 2 주 문 파산자를 면책한다 2006년 8월 2일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 성 흠	면책결정공고 사 건 2006하번250 면책 (2006하번242)파산선고 파산자 흥해상 (730130-*****) 주소 광주 서구 마륵동 42-8 주 문 파산자를 면책한다 2006년 8월 2일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 성 흠	면책결		